

이보다 더 훌륭한 문화유산 어디있나

‘직지’ 홍보사이트 붓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에 우리나라 청주의 흥덕사라는 절에서 만들어진 이 책의 원본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하권 한권만 소장되어 있다. 금속활자는 세계 3대 발명품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인쇄종주국의 위상을 대내 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직지’ 사이트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또 직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사업으로 연결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어떤 사이트들이 눈길을 끄는지 살펴본다. <편집자 주>

jikjiworld.net



청주시 산하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직지관과 금속활자관, 고인쇄박물관, 청주 그리고 흥덕사

코너를 운영하면서 ‘직지’를 자세히 알고 있다.

인쇄문화체험관과 가상체험관, 직지원문보기 코너가 있으며 ‘직지’ 찾기 운동도 안내하고 있다. 직지와 관련한 동영상도 운영되며 눈으로 보는 ‘직지’ 코너에서는 직지의 위대한 역사를 소개한다. ‘알려 드립니다’ 코너를 통해 직지와 관련된 각종 행사와 이벤트도 소개하고 있다.

청주시는 사이버박물관 개관 인사말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책자인 ‘직지’는 우리 청주시에서 1377년 간행되었으며 독일의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보다 78년이나 앞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이 책의 원본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관계로 국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를 직지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만큼 전국민적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jikji.org

‘어서 오십시오. 정보대국의 디딤돌, 직지프로젝트’라는 타



이들로 도서출판 디딤돌이 운영하는 사이트이다. 직지마당 코너에는 찾아보기와 직지에 바란다, 직지프로

젝트 참여, 전산화게시판 등이 올려져 있다. 또 직지자료실에는 시 소설 수필 희곡 외국번역문학 그 밖의 우리문학들이, 직지알림 마당에는 새소식과 쪽지, 직지 및 직지프로젝트가 소개되고 있다. 또 직지 후원자들이 소개된다.

operajikji.co.kr



청주시립교향악단이 직지를 오페라로 제작해 공연하는 안내 사이트. 2000년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에 서울과 청주 등에서 공연을 가져 호평을 받았다.

jikji1377.co.kr

서지학자 서용석(월정사 정보박물관 학예사)씨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사이트 명을 ‘jikji1377’로 정한 것은 ‘직지’의 영



문표기가 'jikji' 이며 1377은 간기에 '1377' 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했다. 이 사이트에는 직지 소개와 직지찾

기운동, 직지연구, 자료실, 자유게시판 등이 소개되고 있다.

jicji-book.co.kr



도서출판 직지심경이 운영하는 사이트. '직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추천작가와 직

지베스트셀러, 추천출판사가 소개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문학 문고 언어 철학 종교 역사 잡지 등을 안내한다.

jikjiart.com



직지디지털연구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직지전자도서관, 구텐베르크, 직지사랑, 직지컬럼, 인연, 글터, 프로젝트 등

의 코너가 있다. 직지전자도서관에는 직지심체요절을 자세히 소개하고 다른 나라 이야기와 활자인쇄, 깨달음의 이야기 등이 실려있다.

jikjibook.com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청주대학교 인터넷창업센터 C-14호에 있는 (주) 엠.아이.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직

지란, 맞춤출판, 나만의 직지 등 코너를 운영한다. 나만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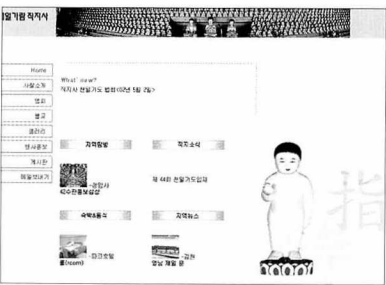
ccnews.co.kr



충청일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직지찾기 운동을 소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이트 서문에는 "청주 천

년의 역사속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찾으면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직지는 우리에게 없고, 멀리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직지원본 없이는 이곳 청주를 실질적인 세계 인쇄문화의 명승지로 만들 수 없다. 이에 직지찾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국내 어딘가에 있을 직지를 찾고, 직지의 중요성을 청주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청주시민회와 충청일보사는 범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적고 있다.

jikjisa.or.kr



금속활자본 '직지'와는 사실상 직접 관련은 없다. 이 사이트는 경북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황악산에 자리

잡은 천년 고찰 직지사를 소개하는 사이트다. 이 절은 신라 제 19대 눌지왕 2년(서기 418년)에 전교승 아도화상에 의하여 초창되었고, 직지인심견성성불이란 불경의 글귀를 따서 직지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임진왜란 때에는 사명대사가 출가한 절이라 하여 왜군에게 혹독한 보복을 받아 40여동이 불타는 어려움도 겪었다. 이후 1960년대에 6차 중건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G